

북스

Books

세상은 함께 하기에 참 살만하지요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

이철수 지음

2009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지나온 1년을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할 때이다. 대부분 아쉬움에 한숨짓고 우울해질 이때, 민중 관화가 이철수씨가 관화 엮서집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를 펴냈다. 지난 1월 펴낸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습니다'의 후속편으로 1년 내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부친 편지를 모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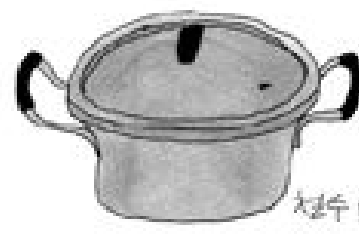
그가 '이철수의 집(www.mokpan.com)'을 통해 그날그날 사는 이야기를 엮어서 그리고 써서 부친지언 8년째. 이를 기간별로 엮은 책들은 한 해의 기록이자 참회록으로 읽힌다.

그리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은 이씨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낀 소소한 감정의 변화까지도 다 담겨있다.

책은 살면서 보는 크고 작은 분투도 그려져 있지만, 시시때때로 박아서 오는 풍파로 겪는 모두의 아픔이 함께 스며들어 있다.

우선, 이씨가 전해주는 소식에는 생명의 본질에 대한 관심과 이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삶의 긍정에 대한 가치가 담겨있다.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휘청거리다 결국 뺏혀나 가진 양 풀과 돌보는 이 없어도 혼자 당당히 꽃을 여는 어린 생명,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해 죄송스러워하는 마루와 설익은 채 떨어져 버린 대추, 은밀하게 내뿜는 봄과 산수유 이야기 등 이씨가 마지막 이 들려주는 일상의 소식들은 하루하루 목숨을 등진



시작 전부터 세상은 '노란 대추'를 보고 이씨가 한아름, 아 맛있고 맛있겠다. 그래서 이씨가 노란 대추를 다시 샀는데도, 저 노란 대추는 맛이 없고... '아 정말 맛있어! 제대추, 아 이걸 샀잖아 노란 대추는 데! 정말 맛있어! 진짜 세상 이래서 아 정말...? 그 이후에 '이제는 노란 대추는 사지않는다'는 사자의 명령이, 우리는 조금 지수롭게 되었어. 또 나는 정말 기억될 것 없이 더 많이 지수있게 될 수 있는 거지요?

처럼 끓여지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기대어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듯하다.

이러한 측은지심 때문인지 이씨의 시선은 소박한 향기를 뿜는 머무르려 할 평범해도 깊은 느낌을 주는 사람, 갈 때가 아닌데도 서둘러 가버린 사람들의 뒷모습, 집과 직장을 잃어 차가운 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겨울을 견디는 이웃, 아침마다 대신 소주로 몸을 녹이는 사람들을 향해 있다.

안타까운 죽음이 많은 해여서 그런지 이번 책에는 슬픔, 아픔과 분노를 토로하는 글들이 많다. 나라의 큰 어른들(김수환 추기경, 김대중 대통령)의 영결과, "스스로 부엉이 바위 아니, 대중의 마음에 몸을 던진 한 사내에게서 여지없이 눈물 젖은 희망을 보았다"며, 괴로움 토로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시대의 아리고 시린 구성구석을 담담하지만 뜨거운 애정으로 살린 이야기도 들려준다.

미국 거대 자동차 기업들을 공룡에 비유하는가 하면, 유모차 지팡이를 끄는 어느 이웃 할머니의 그려 내다가 유모차 훑발 수사로 떠올리기도 하고, 노동절 우편 배달을 보고, 비정규직의 안타까움을 언급하는 등 경장을 부추기는 사회나, 외관을 드러내고 꾸미기 바쁜 비뚤어진 사회풍조를 만들어내는 자본의 축, 권력의 물결, 현실의 부조리를 짚어내고 있다.

이점에서는 이씨의 전자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습니다'에 비해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글로 늘 기뻐만 선물할 순 없고, 저마다 겪는 시름과 아픔을 직접 나누거나 대신 해결해주진 못더라도 함께 마음 맞대고 고민해보자는 제안이 수순스럽지 않은 말과 그림으로 전해져 온다. 제목 그대로 참 고마운 책이다.

〈삼인·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의적으로 거듭난 조선시대 '전우치'

'세종, 대마도를 정벌하다'를 쓴 작가 권오단 씨가 영화 '전우치'의 개봉에 맞춰 조선시대 실제 인물인 전우치를 소재로 탁월한 역사적 상상력과 풍부한 사료와 재기 넘치는 한문시의 묘미를 결합시킨 역사소설 '전우치' 1, 2, 3권을 펴냈다.



조선시대 15세기 후반, 양반인에도 불구하고 관직을 마다하고 야인으로 살고자 한 유생의 아들로 태어난 전우치는 세상을 떠돌다가 탐관오리들의 횡포와 해적들의 약탈 속에 힘없이 살아가는 민초들의 고단한 인생살이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의적으로 거듭난다.

흥길동에 이은 '이인'(異人) 전우치를 실감나게 해 준다.

〈각권·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폐기 구권하임 자서전

폐기 구권하임 지음

올해는 전설적인 컬렉터이자 화가들의 후원자이며 베네치아 구권하임 미술관의 설립자인 폐기 구권하임(1898~1979)이 세상을 떠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맞춰 그녀가 1960년에 펴낸 회고록이 '폐기 구권하임 자서전-어느 미술 중흥자의 고백'라는 이름으로 출간됐다.

탁월한 안목으로 스타 작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을 컬렉션하는 것 외에 화려한 남성편력으로도 이름을 떨쳤던 그의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평전으로 소개됐지만, 국내에서 자서전이 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책은 그림을 사본 적도 없던 폐기가 뒤샹의 조인

미술품 구입 일화·남성편력 등 진솔한 고백

아래 현대미술에 입문하고 이후 '미술에 중독돼' 현대미술계의 전설적 컬렉터로 자리매김하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한 문장으로 고백했다.

폐기 구권하임 미술관의 대표적 소장품 중 하나인 마리노 마리니의 가마상에 얽힌 이야기, 세 번째 남편인 막스 에른스트와의 사랑, 브라쿠시와 칸딘스키, 장 아르트, 헨리 무어, 알렉산더 칼더, 잭슨 폴록 등 수많은 현대미술 대가들과 교류했던 내용뿐 아니라 부유했던 집안 내력과 타이타닉호 침몰 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이야기, 남성편력 등 개인사까지 가깝게 소개됐다.

책은 또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미술품을 하루에 한 점씩 사서 초현실주의 컬렉션을 이뤘거나 서로 다른 예술가가 만들어 낸 귀고리를 각각 한쪽 귀에 차고서 초현실주의와 추상미술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재미있는 일화 등도 담고 있다.

〈미술인·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평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물건리스/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충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유망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군민사업/셀물	대표이사 010-7578-7525	숙박사업/상가	경에서 010-5878-0005	공정/보지	유형주택당 011-602-1005
소매지 대지/건물	개발자 회사가 비교	소매지 대지/건물	개발자 회사가 비교	소매지 대지/건물	개발자 회사가 비교
유형주택 400,000,000	3744년 107만 589원	유형주택 400,000,000	3744년 107만 589원	유형주택 400,000,000	3744년 107만 589원
상업용 400,000,000	2191년 147만 489원	상업용 400,000,000	2191년 147만 489원	상업용 400,000,000	2191년 147만 489원
농장 400,000,000	1974년 49만 489원	농장 400,000,000	1974년 49만 489원	농장 400,000,000	1974년 49만 489원
개발용 400,000,000	1394년 49만 489원	개발용 400,000,000	1394년 49만 489원	개발용 400,000,000	1394년 49만 489원
공장용 400,000,000	1194년 49만 489원	공장용 400,000,000	1194년 49만 489원	공장용 400,000,000	1194년 49만 489원
주거용 400,000,000	1394년 49만 489원	주거용 400,000,000	1394년 49만 489원	주거용 400,000,000	1394년 49만 489원
상업용 400,000,000	1194년 49만 489원	상업용 400,000,000	1194년 49만 489원	상업용 400,000,000	1194년 49만 489원
농장용 400,000,000	1394년 49만 489원	농장용 400,000,000	1394년 49만 489원	농장용 400,000,000	1394년 49만 489원
개발용 400,000,000	1194년 49만 489원	개발용 400,000,000	1194년 49만 489원	개발용 400,000,000	1194년 49만 489원
공장용 400,000,000	1394년 49만 489원	공장용 400,000,000	1394년 49만 489원	공장용 400,000,000	1394년 49만 489원
주거용 400,000,000	1194년 49만 489원	주거용 400,000,000	1194년 49만 489원	주거용 400,000,000	1194년 49만 489원

수완지구 롯데마트앞 임대

분양 펠리스타워빌딩

1층: 약국, 커피전문점, 골프용품, 유아유아랜드,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2층: 패밀리레스토랑, 전문식당, 유아유아랜드, 아웃도어
3층: 병·의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층: 병·의원,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등
5층: 병·의원, 정형외과, 한의원, 비독학원, 당구장 등
6층: 학원, 영아, 수학, 입시, 미술, 음악, 전문학원, 독서실 등
7층: 스카이라운지, 생맥주 호프바

※각층 약 230평 (분할가능)※

○대지매매○
• 수완동 롯데마트 옆 10×10×6m 코너 상업용지 270㎡ 무주최, 수익률 최고, ㎡당 225만원

○점포임대○
• 수완동 주변대포천(35.4번로) 3층사무실 140㎡ ㎡당 110만원 의원, 학원, 사무실적합
• 수완동 삼성전자 옆 외환은행건물(메디칼센터) 2층 620㎡ ㎡당 150만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적합
• 수완동 삼성전자 옆 외환은행건물(메디칼센터) 3층 620㎡ ㎡당 120만원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적합

코리아랜드공인중개사 010-3666-8949

대인동사무소부동산
☎(232)2-1140, 2101 ☎011-802-2322 (동주민센터 상층부,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복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상 분양은 물론이거니와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받기에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받기에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광주 전지역
수의 상가건물 구입한다 (매수자 대가중)

고객님의 소중한 부동산을 비밀리에 매매해드립니다.

상가 ☎ 955-0808
전문 FAX 955-0308

대우공인중개사

☎011-9618-3358, 955-0808

빌딩매매

- 토지 330평 건물 2300평 매매가 50억 보증금 5억 월 5200만원
- 토지 310평 건물 350평 매매가 28억 보증금 5억 월 1700만원
- 토지 160평 건물 650평 매매가 24억 보증금 8억 1000만원
- 토지 95평 건물 280평 매매가 12억 보증금 2억 월 700만원
- 토지 85평 건물 310평 매매가 12억 보증금 1500만원 월 800만